

문화광장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뮤지엄과 컬렉션

뮤지엄과 컬렉션. 박물관과 소장품 또는 수집품을 이르는 외래어다. 지금 전 국민에게 뮤지엄과 컬렉션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 기업 총수가 모은 컬렉션이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그가 남긴 문화재와 미술작품들이 갖가지 화제를 뿌리며 한국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화재와 미술작품을 수집한 장본인의 유가족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품을 기증한 이후, 이 수집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놓고 각 지방정부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뮤지엄을

유치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다. 미술작품이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된 것이 별로 없으므로 이번 사건은 미술관 종사자인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미술계 관계자들도 놀라워할 정도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두말한 나위 없이 컬렉션은 뮤지엄의 필수 요소이며, 뮤지엄은 문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과 수집품은 이제는 문화사회의 상식이 된 언어들이다. 문화재나 미술작품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집약한 것이 수집품의 힘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이러한 뮤지엄 매커니즘의 과정을 생략한 채, 그 결과만 들여다보고 있다. 지방정부의 뮤지엄 유치경쟁이 일전 반가우면서도 그동안의 문화행정을 돌아볼 때, 문화적 성찰이 부족한 대중주의 문화정치가 아닌 생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소장품에 투자하지 않고 세계적 미술관을 기대하는 빈약한 문화인식이다. 세계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문화적 깊이에는 아직 한계가 분명하다. 천민자본주의가 앞선다는 자성이 나오는 이유이다. 루브르박물관과 오르세미술관, 폼피두센터가 갖춘 파리를 생각해보자. 전근대와 근대, 그리고 동시대 미술을 두루 아우르는 문화도시 파리의 뮤지엄 라인업은 환상적인 문화기반이다. 이러한 라인업의 힘은 컬렉션에서 나온다. 제국주의시대를 풍미한 루브르의 압도적인 컬렉션은 그 연원을 따려 원망해도 소용없을 정도로 전지구적인 힘을 가진다. 인상파 중심의 근대미술을 갖춘 오르세미술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컬렉션의 힘이 있기에 동시대 미술을 두루 껴머 종합무늬하는 폼피두센터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따라잡으

며 활력을 불어넣는다. 게다가 팔레트 도쿄처럼 컬렉션 기반을 벗어난 공공 전시장도 문화적 역동성을 배가한다. 한국은 소장품 수집에 제한적인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 기증문화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문화선진국의 컬렉션 수준은 넘사벽이다. 그들도 그랬다. 제국주의시대의 탈위가 아닌 바에는 근대를 지나면서 대량기증으로 시민사회의 기부문화로 중심으로 한 기증품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그 기반 위에 동시대를 따라잡는 전시와 소장품 정책을 병행해야 과거를 복원하고 동시대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새 개념, 포스트 뮤지엄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동하는 동시대 또는 차세대 뮤지엄 개념이다. 소장품 기반 위에서 동시대를 따라잡고, 동시대를 창출하는 문화전략에서 나온다.

사설

선거의 계절 앞뒤 민생 외면한 도의원들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이 의심된다. 엇그제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때문이다. 예결특위 의원석이 말 그대로 거의 텅텅 비었다. 15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 참석한 의원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예결특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자리를 비워 빈축을 사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특위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칼날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의원은 절반도 되지 않

7만명 참석한 것이다. 이날 제주에서 열린 이낙연 전 총리 지지 모임 출범식에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의원들이 선거의 계절을 앞뒀던 의원마저 쫓겨나고 있다. 내년 3월 치르는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처럼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원효동 지사가 대권 도전으로 지사직을 사퇴할 예정이어서 도백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 지사가 조기 사퇴할 경우 도지사 직무대행을 맡게 될 행정부지사는 이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특위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칼날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의원은 절반도 되지 않

열린마당

실업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



김미숙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로 힘든 사람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자들이 취업 활동에 전념하게 해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 요건들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한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일일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거나 연속해 14일간 일한 날이 없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보험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2021년 기준(1일 8시간) 최저 일액은 6만120원, 최대 6만6000원이 지원된다. 실업급여 신청은 제주 및 서귀포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공공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995년에 도입된 실업급여 제도는 IMF 경제 위기에 주요 기업들의 부도가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로 이어져 실업자들이 급증하게 되자 실업자 41만 2000명에게 이 제도를 통해 7991억여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갑자기 막대한 실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을 1998년 10인 이상에서 1인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2021년 4월 기준 가입자 수는 1419만 명이고 수급자는 73만9000명, 수급액은 1조1580억원이다. 작년 제주도의 경우 1만7889명에게 1566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돼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이는 2019년도 1만1413명에게 832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경제악화 및 코로나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부조리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

원 지사, 윤 전 총장에 한마디 ○...원효동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부조리 앞에 정치 공학의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비판. 원 지사는 7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검찰이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수사대상인 정치검찰들은 승진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수사들은 좌절하고 있다”고 언급. 이어 “윤 전 총장은 어디 있는 나”면서 “사법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에 맞서 외롭게 싸우는 후배 검사들의 분노가 보이지 않느냐. 부조리 앞에 정치 공학의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당당했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고인. 이상민기자

주민자치위원 26명 결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 정월 미달 및 자진사퇴 등으로 26명 결원이 발생하면서 제주시가 오는 14일까지 추가 모집에 착수. 결원은 지역대표 4명, 직능대표 6

명, 일반 주민 16명으로,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분야별 공개 추첨을 하고 정월 미달 시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제주시장이 최종 위촉. 시 관계자는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점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며 “지역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강한 적임자들을 선발해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7일 도교육청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참여를 강조. 이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한림초등학교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모두 음성인 나와 다행이라면서 “아직 긴장을 늦출 단계가 아니기에 방역 수칙 준수에 협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 특히 이 교육감은 “일상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참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고 주문. 전진희기자

교통안전대책, 단속만이 능사인가

제주지역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단속강화로 인한 단속건수도 크게 늘었다. 교통사고가 가져올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감안하면 예방 차원에서 행해지는 단속강화에다 단속건수 증가는 필연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교통단속 강화로 건넌 과태료·벌칙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사고감소엔 미미한 효과를 가져왔다면 단속만이 능사 아니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제주경찰이 작년 부과한 교통벌칙금·과태료 집계결과 지난 2018년 114억원, 2019년 120억 원에 비해 20억~30억원 많은 147억원을 웃돌아 역대 최고치였다.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가 142억8900만원 이고, 경찰 현장단속에 의한 벌칙금이 4억5000여만원이다. 주 내용 내용은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교통 벌칙금·과태료 부과는 올해의 경우 ‘안전 속도 5030’ 전면 시행으로 다시 ‘

기록 갱신’을 할 전망이다. 도 전역에 걸친 교통단속 강화는 당연히 사고 예방에도 사고건수 감소로 이어져야 한다. 현실은 이와 달라 문제다. 최근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8년 4239건(사망 82명), 2019년 4412건(사망 66명), 2020년 4030건(사망 68명) 등을 기록해 역대 최고 단속 부과액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7년 17건, 지난해 3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경찰의 교통안전대책이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사고예방·계도활동, 안전시설 및 도로구조 개선에도 나서야 할 이유다. 특히 관광객 렌터카 교통사고가 매년 500건 넘게 여름철과 주말에 주로 발생하는 현실도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교통안전대책이 단속중심의 방법 못지않게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로 이어질 새 방안 모색에 중점을 모을 때다.

부고 고영호(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축구협회 회장·제주영롱가 대표) 어머니 광산김씨 정혜(향년 85세)께서 서기 2021년 6월 7일 08시 20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1년 6월 8일(화요일) ▶발인일시: 2021년 6월 9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오라동 가족묘지 (제주시 오라2동 3595) 아 들 고영호 며느리 정경자 성호(敬) 고서영 딸 고정림 사위 정홍규(敬) 손 자 고호준 외손녀 정인경 호경 민경 호건 석빈 ※ 연락처 : 고영호 010-3691-9025

토지 급매 가격 1) 서귀포 법성 최고 전망(특A+++) 건축허가 완료, 10필지 중 토지 150-220평 단, 8개 남음 ★평당 22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 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호근동 별장부지 법성 조망 최고, 서호초 2분, 하나로마트 3분거리 총 681평 ★150만원★ 4) 강정동 해안도로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최고, 호철 및 고급 빌라 부자용, 총 2486평 ★190만원★ 5) 월평동 해안도로 초근접 바다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카페부지 특 A+++ 총 1635평 ★85만원★ 6) 강정동 해안도로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월평동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건축허가 150평, 180평, 380평, ★160만원★ 010-5432-3543, 010-4627-354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을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만감류 ○한라봉 등 만감류는 생리낙과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육정도에 따라 열매숙기, 병해충 방제 작업과 온도관리와 물관리에 집중해야 함 ○온도관리 - 주야간 온도차: 한라봉 13℃, 천혜봉·레드향·황금향 10℃ 이내 - 주간온도: 생리낙과기 28℃ 이하, 낙과 이후 30℃이하로 관리 ○물관리: 5-7일 간격으로 15-20톤/10a ○1차 열매숙기: 6월 상순, 적과량 60-70% - 열매숙기 기준: 잎 100-120매 당 1과, 12-13과/㎡ 내외 □옥수수 ○병해충 방제: 멸강나방, 열대거세미나방, 조명나방 등 ○작기 수확: 임야사 발생 20일 후 성숙 정도 확인 후 이른 아침에 수확 - 한낮 더운 시간에 수확하면 이삭 내 온도가 높아져 품질 저하 우려 □단호박 ○착과 및 과실 비대기로 착화 20일 후 병충해 이충 열매 돌리기 ○병해충 방제: 흰가루병, 역병 등 □콩 ○밀비료 사용(N-P-K kg/10a): 화산회토 4-12-5, 비화산회토 4-6-5 - 콩전용 복합(8-14-12): 화산회토 75kg, 비화산회토 50kg ○파종기간: 6월 상순 ~ 하순(기온 20℃이상 토양수분이 충분할 때) - 너무 늦은(7월) 파종은 개화기 저온 또는 늦은 태풍 피해 우려 ○파종량(10a): 3-4kg ○종자소독: 콩 종자 1kg + 약제(베노라수화제) 4g 혼합 분의처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53)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사회복지법인 강태원복지재단은 2021년 4월 23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4월 30일 해산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해산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 재일로부터 2021년 7월 21일까지 관계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사회복지법인 강태원복지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연로 199(오라이동) 청산인 강영일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